

제154호

발행일 : 서기 2022년 2월 23일  
창간일 : 서기 1969년 5월 1일  
재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태영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우)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홈페이지 : andongkimc.kr  
E-mail : andongkimgu@naver.com

### 존경하는 안동김문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일년을 설계하는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오미크론 변이로 비대면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고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김씨대종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백범기념관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3월에 이사회와 정기총회 개최 일자를 잠정 예약했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관 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면 진행으로 대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의 비대면 수칙이 완화되는 대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여 이사회(理事會)에 보고할 생각입니다.

대종회장으로서 그동안 투명한 종재관리, 묘역 성역화 추진, 젊은 종친들의 참여 촉진, 교육사업, 만화(애니메이션) 위인전 발간 등 여러 사업방침을 천명한바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많은 진전

을 이루기는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쪽은 시작도 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위축될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종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대종회의 내실을 다져나갈 생각입니다. 대종회가 시대 변화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종친 여러분께서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3월이면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코로나의 성공적인 극복과 함께 국제적으로는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미 대화 재개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발전시키며 국민적 대통합을 이루어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으로 지난해 종친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팬데믹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석한

### 謹賀新年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동김씨대종회 임원 일동

- 顧問 45名  
(郡)在化·德賢(在)·俊默(典)在旭·大教(文)榮煥·在承·在湔·光道(泰)·秀吉(在) (都)昌會·會秀(會)·榮福(泰)·熙允(泰)·元重(植) (大)泰植 (提)永默·相祚(在)·南應(會)·泰完·天應(會) (按)榮萬·璇會·觀默·在澤·聖會·泰龍·泰文·春植·喆會·雄會(翼)泰吉·在寬·在瑢·在勳·基成(在)·善會·花子(容)·鳳會·在鎮·容世(書)在峻·詳浩(植) (正)洙鎮(泰)·元植
- 名譽會長 (都)鳳會
- 會長 (翼)錫漢(在)
- 副會長 32名  
· 派宗會長  
(判書)春教(典) (文英)在永(翼) (密)在亨(開)履暲(植) (郡)俊會 (典)興植 (副)元鎬(會) (文)潤萬(會) (安)洪基(泰) (都)玉洙(會) (大)燦會 (提)泰憲 (按)亨南(容) (翼)在男 (書)德永(會) (正)泰石
- 地域宗親會長  
(安東)在教(翼) (釜山)泰祚(在) (都) (大邱)正默(翼) (仁川)成默(郡) (華水)喜鏞(郡) (淸州)泰成(翼) (都)首珽(在) (提)首在萬 (按)首泰聖
- 任命  
(郡)在二 (典)官教 (提)泰瑄 (翼)聖會·康植·永植·泰龍

- 監事 (提)奎元(泰) (按)泰善
- 理事 88명  
(密)在革 (開)雄善(容) (郡)在玉·重會·勝會·張默·亨默 (典)在錫·泰振·文會·珍會·泰義 (副)榮植(榮)·成煥(默)·圭世(在)·昌鎬(會)·泰亨(文)榮潤·亨默·光默·胤植·景會·桂萬(會)·容九(安)鳳基(泰) (都)大會·遠中(植) (大)泰權 (提)相基(在)·大應(會)·奎喆(泰)·泰皓·瀚植·泰憲·雲澈(容)·容恒·泰施·泰權 (按)容周·思富(默)·泰駿·雲會·在琦·仁植·泰永·鳳振(泰)·容元·炫秀(泰)·在澤 (翼)根植·容默·允默·洙寅(泰)·相默·在澤·榮和·在源·寅會·晟會·榮秀(泰)·泰信·閔植·英桓(植) (書)珪永(會)·正洙(默) (正)泰仁 (判書) (郡)在九·(典)仁教(安東) (翼)泰剛 (釜山) (都)熙仲(泰)·(翼)晶會(大邱) (文)永會·洙吉(泰) (仁川) (典)憲德(容)·龍教·龍雨(大田) (典)凡祐(會) (華水) (翼)在和(淸州) (按)榮一(龍仁) (按)振姬(泰) (唐津) (翼)善會(會坪) (提)章應(會) (首都) (都)運中(植)·(提)奉會·龍植·坪應(會)·(按)在明·政會
- 事務處  
· 事務總長 (郡)泰榮 · 事務副總長 (翼)泰喆 · 常任有司 (翼)東洙

# 안동김씨대중회 김석한회장 공주시 명예시장 재위촉



▲(좌)김석한 회장, (우)김정섭 공주시장

2022년 1월 11일 충남 공주시는 초대 공주시 명예시장으로 선임됐

던 (주)인성하이텍 김석한 회장을 재위촉하고 김정섭시장이 직접 위촉패를 전달하면서 공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등 왕성한 활동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유구 출신인 김석한 회장은 (주)인성하이텍을 설립해 인조 모피로는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석권한 기업인이며 대주학원 이사장으로서 보인고등학교를 명문으로 키워가고 있고, 공주대학교 발전기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고향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안동김씨대중회 회장으로도 봉사하면서 안동의 충렬공(휘 방경)중시조 묘역 정화공사, 휘경동 대중회관 리모델링공사, 제학공(휘 익달) 단묘조성, 안렴사공(휘 사렴) 재실중건, 익원원공(휘 사형) 재실중건 시에도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종사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

## 서울시립초중고법인협의회 새회장에 김석한 대주학원 이사장 선출



김석한 이사장(학교법인 대주학원)이 이달 8일 열린 서울시시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제159차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4년이다.

신임 김석한 회장은 공주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지난 2004년에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소재의 보인중·고

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대주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중등축구연맹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모피제품 제조기업인 (주)인성하이텍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아울러 안동김씨대중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2019년에 대한민국 모범경영인 부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 2022년도 이사회 및 제55회 정기총회 서면 대체 안내

매년 3월이면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되던 안동김씨대중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금년에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대면 개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던 백범기념관 예약이 정부의 권고 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권 취소되므로써 다른 장소를 알아보려 했으나 불규칙한 감염증상 발생의 증가로 다수의 모임 자체가 어렵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종친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장단 및 이사님들께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 종사를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중회의 각종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종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일

안동김씨대중회 회장 김 석 한

### 회비를 보내주신 종친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1월 ~ 2021년 12월 31일)

◎ 임원회비

- 20만원 : (典)춘교 · 관교 (大)찬회

◎ 임원회비 (이사)

- 10만원 : (密)재혁 (開)웅선 (典)현덕 · 용교 · 용우 · 인교 (副)창호 · 성환 · 영식(춘식) (文)계만 · 형묵 (安)봉기 (大)태권 (提)태권 · 태헌 (按)진희 · 정희 (翼)수인 · 성희 · 민식 (正)태인

◎ 통상회비(일반)

- 3만원 : (副)정묵 (翼)용백
- 2만원 : (翼)창묵 · 정희 (書)규태

◎ 찬조금

- 10만원 : (郡)범직

◎ 평생회비 · 20만원 : (提)형식 (翼)재성

◎ 헌 성 금 · 100만원 : (翼)판결사공중중(수원)

####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2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1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2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2만원 이상
- 찬 조 금(개인 및 단체)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중회



# 음수재(飲水齋)를 생각한다.

사무총장 김태영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어디서 흘러 왔는지 수원을 생각한다.  
(飲水思源)”



오늘의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득히 먼 옛날의 조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이처럼 사람들이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근본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능동에는 안동김씨 중시조(中始祖)이신 상락(上洛)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의 묘사(墓祀)를 위해 건립한 능동재사(陵洞齋舍)가 있는데, 1940년 후손 외부주사 김문연(金文演)이 그 중심건물의 편액을 음수재(飲水齋)로 써서 달았다. 우리 선조들은 재사의 이름을 왜 음수재로 지었을까?

중국 남북조시대 유신(庾信, 字 子山)이 남긴 시문집 『유자산문집(庾子山文集)』의 징조곡(徵調曲)에 ‘과일을 따서 먹을 때는 그 열매를 맺은 나무를 생각하고,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수원을 생각하라.’ ‘낙기실자사기수(落其實者思其樹) 음기유자회기원(飲其流者懷其源)’의 구절에서 ‘음수사원(飲水思源)’이란 성어가 나왔는데 우리 능동재사의 음수재(飲水齋)는 여기서 따온 이름이다.

서기 6세기경 시인이었던 유신(庾信)은 원제(元帝)의 명을 받아 북부 지역 서위(西魏)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장안(長安)에 억류되었다. 서위의 왕은 글재주가 좋고 명망이 높은 유신에게 대관(大官)이란 벼슬을 주며 평생토록 두터운 예우를 하였으나 유신은 변함없이 조국과 고향 부모에 대한 연모의 정을 잊지 못하며 그 비통한 심정을 청신한 형식의 시문으로 표현하였다.

## ■ 안동지방의 대표적인 재사(齋舍) 소개

名稱	該當人物	本貫	樓臺名	齋室名	所在地
능동재사(陵洞齋舍)	상락공 김방경(上洛公 金方慶)	안동(安東)	-	음수재(飲水齋)	녹전면 죽송리 능동
“	태사 권 행(太師 權 幸)	“	추원루(追遠樓)	誠敬齋 思敬齋	서후면 성곡리 능골
태장재사(台庄齋舍)	태사 김선평(太師 金宣平)	신안동(新安東)	이상루(履霜樓)	추원재(追遠齋)	서후면 태장리
성곡재사(城谷齋舍)	태사 장정필(太師 張貞弼)	안동(安東)	영취루(永輝樓)	추원재(追遠齋)	서후면 성곡리
금계재사(金溪齋舍)	풍산부원군 류중영(柳仲郢)	풍산(豐山)	영모루(永慕樓)	송실재(崇實齋)	서후면 금계리
수동재사(水洞齋舍)	서애 류성룡(西厓 柳成龍)	“	-	상로재(霜露齋)	풍산읍 수동리
서지재사(西枝齋舍)	혁봉 김성일(鶴峯 金誠一)	의성(義城)	-	-	와룡면 서지리 11
근재재사(近齋齋舍)	근재 이 전(近齋 李 荃)	예안(禮安)	모선루(慕先樓)	호암재(虎巖齋)	풍산읍 만운리
남흥재사(南興齋舍)	판서 남휘주(判書 南暉珠)	영양(英陽)	원모루(遠慕樓)	-	와룡면 중가구리 남흥마을

이 ‘음수사원(飲水思源)’의 고사는 백범(白凡) 김구(金九) 선생께서도 중국의 임시정부 시절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고 조국 고향을 그리워하며 좌우명으로 즐겨 쓰시던 고사성어이기도 하다.

김재승(金在承) 문운공파종회 전 회장께서 2002년 1월 30일자 안동김씨대중회보(제75호)에 기고한 “飲水齋에 관한 提言”에 의하면 “음수재는 풍산읍 회곡동에 있었던 우물에서 유래되었는데, 충렬공께서 청년 시절 마시던 샘(泉)이라고 한다. 후손들이 그 우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자를 짓고, 음수재(飲水齋)라 이름하여 편액을 달았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허물어져 없어지고 현판만 남아 전해 오던 것을 능동(陵洞)에 재사(齋舍)를 중수하면서 그 현판을 옮겨 달았다고 한다.

능동재사(陵洞齋舍)에는 중심건물인 음수재(飲水齋), 영정을 봉안한 영정각(影幀閣), 제관(祭官)들이 머물 수 있는 행랑채 재방(在房), 독립된 외부 화장실, 재사(齋舍)와 묘소를 관리하는 관리사(管理舍)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 안동지방의 재사(齋舍)와 재(齋)의 이해

재사(齋舍)는 후손들이 조상을 추원(追遠)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묘를 수호하고 제사(祭祀)를 받들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다. 혈연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적 환경에서 후손들은 재사에 모여 묘제(墓祭)를 준비하고 음복(飲福)을 함께 나누며 종중(宗中)의 결속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재사(齋舍)로 지칭하는 것은 대개 영남지방(안동)의 풍속으로 재사의 중심건물인 재(齋)를 포함하여 여러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규모가 타 지방에 비해 광범위 하다. 재사(齋舍)의 명칭은 대부분 고유명사인 그 지역 이름을 앞에 붙였으며, 재(齋)는 조상을 생각하고 공경하며 엄숙하게 받드는 명칭을 나타내었다.

또한 규모가 큰 재사는 서원형태의 건물 양식으로 누대·동재·서재·관리사·전사청·제기고 등 부속건물 들을 배치하여 묘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집회장소·강학장소·외빈접대장소 등 종중의 결속을 다지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면서 집성 마을은 해체되고 인구도 점차 줄면서 대부분의 재사(齋舍)들이 점점 퇴락(頹落)하여 현재는 1년에 한번 조상의 시제(時祭)를 지내기 위한 공간으로 근근이 이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 사단법인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 양승조 충남도지사 초청 -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반도평화통일 포럼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법혜스님)은 12월19일 14시 한들문화센터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초청하여 <사회 양극화 해소와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 하였다.

이 자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유경득 UPF 대전.충남지구 회장겸 선문대학교 부총장, 연화 스님 소림불교 임제종 종정, 세계불교법왕청 청장 능인스님, 일봉문도회 총재 동봉스님, 김주신 미국 메릴랜드 주 한국 특임대사, 김대응 공동대표등 방역수칙에 따라 99명이 참석 하였다.

양승조 도지사는 특강을 통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과 고령화 문

제가 위기의 기로에 있다면서 충남 220만 도민들의 지혜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선진복지건설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 하였으며, 유경득 선문대학교 부총장은 발제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평화 실현을 위하여 국민통합과 상호존중과 나눔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기념사업회 회장 김법혜 스님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지구촌 모두가 고통을 앓고 있으므로 어려울때 일수록 나 자신을 성찰하고 충무공김시민장군께서 3천8백명의 군사와 군민으로 정예화된 왜군 3만명을 맞아 싸워 2만명을 무찔렀던 것을 상기하여 김시민장군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몸소 실천하신 애국, 충혼과 희생정신을 김시민정신으로 삼아 충청남도과 천안시의 정신문화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김시민장군 선양사업에 동참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2021년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남진각 스님(사)민족통일불교전남협의회 회장, 송법장 스님 (사)민족통일불교경남협의회 회장, 조성수 UPF 대전 충남지구 부회장겸 사무총장, 엄소영 천안시 시의원이 통일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회장 김법혜스님

## 김종묵(金宗默, 군사공파) 종친 장성진급



2021년 11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김종묵 종친이 삼정검(三精劍)을 수여 받았다. 삼정검은 조선시대 왕이 무관(武官)에게 하사 하던 호랑이를 상징하는 사인검(四寅劍)에서 유래 했다.



김종묵(金宗默, 1971生) 종친은 평택출신으로 보명(譜名)은 상묵(尙默)이다. 군사공파 자산공(慈山府使 諱 允精)의 후손이며 향리에서 농업에 종사한 아버지 진희(軫熙, 1940~2011)의 차남으로 평택 신한고와 청주대 화학과를 졸업한 후 137학군단 32기로 임관했다. 11공수특전여단 대대장, 국방부 근무지원단 참모장, 53사단 126연대장, 수

도군단 작전처장 등을 역임하고 이번 장성 진급에 따라 육군 3군단 참모장에 부임하였다.

청주대학교 학군단(ROTC) 출신

한편 청주대학교는 학사 출신 장성은 다수 배출했지만 학군단 출신은 1996년 창설된 이후로 2400여 명의 장교를 배출한 이래 이번 김종묵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학군단 출신 최초의 장성이 탄생했다고 보도했다.

### 【김종묵 장군의 계보】

방경(方慶)-선(愼)-승용(承用)-후(厚)-군사공 칠양(七陽)-진(填)-삼노(三老)-곤(坤)-윤정(允精)-지(訖)-언정(彦禎)-진(珍)-계선(繼先)-격(格)-봉의(鳳儀)-유(濡)-광갑(光甲)-욱빈(旭彬)-진필(鎭弼)-중호(仲浩)-상기(相琦)-진희(軫熙)-종묵(宗默, 譜名 尙默)

주거/사무실/상업 공간 인테리어

## A done Design

에이던 디자인

대표 / 실장 : 김 태 환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7길 13, 오피스 B동 1217호 (문정동, 힐스테이트에코송파)

TEL : 02-6956-3237  
FAX : 02-6956-3233  
E-mail : adone-design@naver.com  
www.adone-design.com

##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 진 식 (총렬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 P. 010-3507-1239  
E-mail : ddundol@hanmail.net

금융감독원 등록업체

## 열린손해사정법인

www.yeolrin.co.kr

손해사정사 김 재 민  
전)삼성화재 보상과 근무

우)08023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1 (세양빌딩 2F)  
Tel : 02-855-4973 (직통)FAX : 0504-252-8845  
M : 010-3362-8845 E-mail : j.min,kim@yeolrin.co.kr

**교통사고시** 소독, 과실, 장해, 향후치료비, 정정사항 등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산재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청구관계검토

**교통사고시** 고철이나 인대파열로 수술한 경우 장해보험금(지급율 3%~100% 또는 1급~6급)을 검토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장해진단서 발급방식이 McBride식, AMA식,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등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암 · 화재재해 · 교통사고 · 후유장애 · 국가유공자 국가장애인등록상담 · 산재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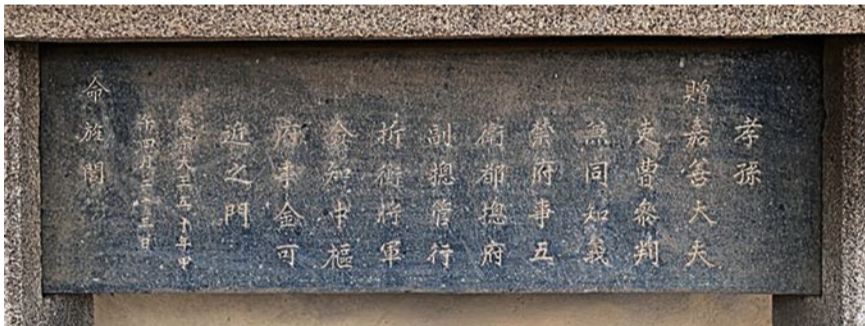
# 효손 김가근(金可近)의 정려



▲정려각 - 서산시 갈산리 산17-7

김가근(金可近, 1658~1740)의 본관은 안동으로 고려 충렬공 김방경(金方慶)의 현손인 제학공(휘 익달)의 후예로 조선중기 시인 백곡(柏谷)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의 손자이며 보안찰방(保安察訪)과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김천정(金天挺)의 차남으로 충북 괴산군 능춘리에서 출생하였는데 아버지가 큰집 득종(得宗)에게 출계(出系)하였다. 어려서부터 용모가 수려하고 총명하여 조부이신 백곡 선생께서 장차 이 아이가 가문을 빛 낼 것이라며 기뻐하셨다고 한다. 음사로 중부참봉이 되고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부호군을 지냈다.

김가근(金可近)은 젊었을 때 조부이신 백곡 김득신선생을 간병하게 되었는데, 마침 집에 화적들이 들었다. 노복들 조차 도망가버리자 홀로 칼에 찔려가며 온 몸으로 대항하여 화적을 막아 조부를 지키고 겨우 목숨을 구하였다. 이에 괴산 유림들이 모두 지극한 효성이라고 칭송하였다. 『영조실록(英祖實錄)』에 의하면 1744년(영조 20) 9월 22일 장령 윤광천(尹光天)이 故참봉 김가근의 행적을 칭송하며 특별히 정려하도록 상소하였는데 영조가 품처하라는 명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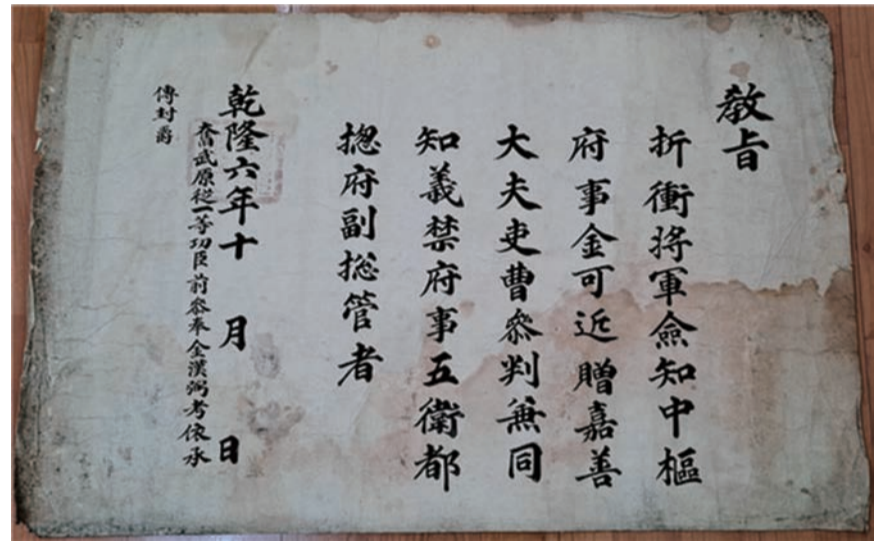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의 정려문 건립 연대는 30년 후인 1774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뒤로 7세손 김재헌(金在憲, 1890~1964)이 1964년에 정려각을 개건(改建)하였다. 처음 정려 건립 시 만들어진 원래 현판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의 정려는 2021년 10월에 서산시에서 갈산리 산17-7 묘역 부근으로 이전했는데 정려각 내부에 《효손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행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김가근 지문(孝孫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副總管行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金可近之門)》영종대왕 50년 1774년 갑오 4월 23일 명정려

(命旌闕) 라고 내려진 석재(石材) 현판이 걸려 있다.

그러나 김가근의 교지에는 1740년 83세로 졸하자 아들 사포서 직장(司圃署直長) 김한필(金漢弼)이 이인좌의 난에 공을 세워 분무원종1등공신(奮武原從一等功臣)에 오르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서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가자하였다. 즉 효손으로 가자된 것이 아니라 분무공신인 아들에 의해 증직된 것이다.



▲교지-9대손 김규철 제공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김가근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자 건륭 6년 (1741년) 신유년 10월 분무원종1등공신 전참봉 김한필 고의 승전 봉작

김가근은 선조(宣祖)의 4째 아들 신성군(信城君)의 후손인 이동백(李東白)의 따님, 전주이씨와 혼인하여 처향인 해미에서 살았는데 괴산을 자주 왕래하면서 어려웠던 생가를 돕고 조부이신 백곡 선생을 간병하곤 했다고 한다. 참판 이진백(李震白)은 처 백부이고 그의 아들 삼도통제사를 지낸 이택(李澤)은 처 사촌이다. 이택의 신도비는 예조 참판 윤봉조(尹鳳朝)가 짓고, 지제교 김진상(金鎭商)이 글씨를 쓰고, 전액은 대사헌 조상경(趙尙綱)이 썼는데 금석집첩 목록에 있다.

김가근의 묘소는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정려각 옆 산록에 있으며 후손 진사 김낙수(金洛受, 1764~1837)가 지은 구묘비와 최근 건립한 신묘비가 1기씩 있다.



▲교지(教旨) - 9대손 김규철 제공  
김가근 위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자 건륭 3년 (1738년) 무오년 5월 20일

## 정정공고

대중회보 2021년 11월 30일자 3면 중시조 충렬공 세일사 기사에서 능동충렬공 제수 찬조 안동부녀회를 안동중친회와 안동부녀회로 정정



# 전서공파 김용재 ‘2020금강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대전대학교 서예디자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용재(典, 1995년생)군이 대전 mbc와 공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0금강미술대전’ 서예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2월 27일 공주 고마 아트센터에서 진행된 ‘2020금강미술대전’은 서영화, 한국화, 서예, 문인화 부문에 총 551점이 출품됐으며, 김용재군은 매일당 김시습 선생의 시 ‘산북(山北)’을 작품으로 제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용재군은 전서공(휘 성목) 후손으로 손자사랑이 각별했던 경북 칠곡에 거주하는 태익(泰益, 1940생)씨가 손자의 수상소식을 손편지로 대종회에 보내와 회보에 등재하게 되었다.

### 〈김용재 계보〉

전서공(성목)-휴-익정-숙-덕영-주-희수-응청-억성-상-영립-현철-운백-영진-락수-성원-유기-우년-희묵-재덕-만회-태익-준식-용재(容材, 1995년생)

용재군은 대전대 3학년 재학중에도 ‘제16회 대한민국서예한마당’ 대학부에 한수재 권상하선생의 시 ‘송춘(送春)’을 출품하여 대상을 차지한 전력이 있어 대한민국 서단은 물론, 안동김문 서예사의 맥을 이어갈 꿈나무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 【우리 선조님 역대 서예가】

#### ■ 고려시대

- 김효인(金孝印)-보경사 원진국사비, 월남사 진각국사비
- 김순(金恂)-동화사 흥존국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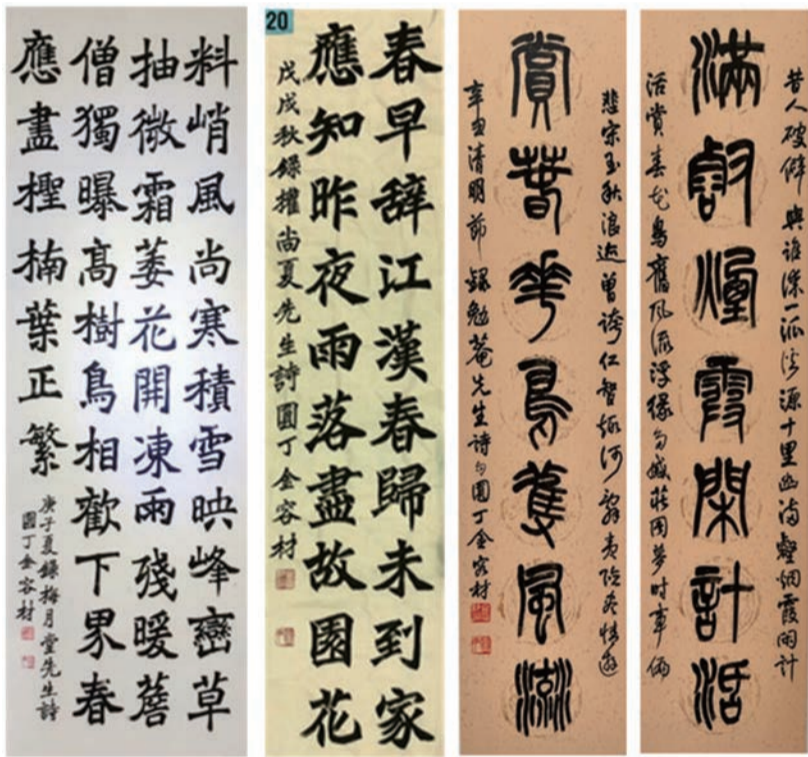
#### ■ 조선시대

- 김뉴(金紐)-해동명적 · 김수동(金壽童) - 한계순 신도비
- 김희수(金希壽) · 김노(金魯)부자 - 계주문, 이가서법, 다수의 비문
- 김영수(金永綬) - 제주 탐라형승, 통영 제승당 현판 등 다수

#### ■ 근 대

- 김구(金九) · 김정희(金正會) · 김사달(金思達) · 김윤회(金崙會)

### 《김용재 작품 소개》



#### 【작품1】 산북(山北)

料峭風尙寒 積雪映峯巒 草抽微霜萎 花開凍雨殘  
요초풍상한 적설영봉만 초추미상위 화개동우잔  
暖簷僧獨曝 高樹鳥相歡 下界春應盡 檉栒葉正繁  
난침승독폭 고수조상환 하계춘응진 정남엽정번

봄추위에 바람 아직 차고, 쌓인 눈 산봉우리 비추니  
풀 돋다 무서리에 시들고, 꽃 피다 찬비에 처지지만  
중은 처마 아래 홀로 별 쬐고 새는 나무 높이 서로 정다우니  
하계의 봄이 응당 다하면, 능수버들 잎이 정히 번성하리  
출처 : [매월당집(梅月堂集)] 권9 유관서록(遊關西錄)

#### 【작품2】 봄을 보내며[送春]

春早辭江漢 春歸未到家 應知昨夜雨 落盡故園花  
춘조사강한 춘귀미도가 응지작야우 낙진고원화

이른 봄에 강호를 떠나왔는데 봄 돌아가도 집엔 가지 못하네  
알래라 어젯밤의 내린 그 비에 옛 동산의 꽃송이 모두 졌겠지  
출처 고전번역원 /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 1641~1721)

#### 【작품3】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선생이 50세인 1882년(고종 19) 4월에 여러 친구들과 금강산을 유람할 때, 철원의 삼부연(三釜淵)과 용화(龍華)를 지나면서 지은 시이다.

昔人破僻與誰謀 一派溪源十里幽 滿壑烟霞閑計活 賞春花鳥舊風流  
석인파벽여수모 일파계원십리유 만학연하한계활 상춘화조구풍류

옛사람은 누구와 이곳을 열었던가,  
한 줄기 물 근원이 십 리에 깊숙하지  
골에 연하 가득하여 한가롭게 살려네,  
봄날 화조를 감상하니 풍류 예스럽지

浮緣多感莊周夢 時事偏悲宋玉秋 浪迹曾誇仁智趣 何辭夷險盡情遊  
부연다감장주몽 시사편비송옥추 랑적증과인지취 하사이험진정유

부질없는 인생 장주의 꿈이 회상되고,  
세상일은 송옥의 가을이 더욱 슬프지  
떠도는 자취 산수의 흥취도 많았으니,  
즐거운 이때 험하다고 어찌 사양하리

- ① 장주(莊周)의 꿈 : 호접몽(胡蝶夢)과 같은 말.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 다녀 자신이나 세상일을 완전히 잊었다고 하였다. 《莊子 齊物論》
- ② 송옥(宋玉)의 가을 : 송옥(宋玉)은 전국(戰國) 때 초(楚) 나라 사람으로 굴원(屈原)의 제자. 사부(詞賦)에 능하여 비추부(悲秋賦)를 지었으므로 가을을 말할 때 흔히 송옥을 일컫는다. <출처> 고전번역원



# 역사의 향기(香氣)를 품다

## “장령공-서운관정공 영단 개축공사”-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90호 정비사업” 소개



서운관정공과 종중회(兼)하당공종중회 김덕영(德永) 이사장(사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장령공-서운관정공 영단 개조공사』와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 90호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들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 한다.

### [1] 장령공-서운관정공 영단 개축 공사

우리 문중의 최초 세장지(世葬地)는 <서울시 반대방동(현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 일대 16만 평이었으나 1938년 일본강점기에 이 지역이 『성남고등학교』 부지로 편입되면서 당시 그곳에 모시고 있던 분묘 26기 중 6기(啞 배위, 自行, 季演, 希壽, 魯, 徐甄)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81번지(廣谷)>로 천묘하였다. 이후 장령공과 파시조 서운관정공의 묘 실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1981년 6월 20일 초대 이사장 김정호(定浩 1927~1994)에 의해 유연재공(金希壽)과 동고공(金魯) 묘 상단에 영단을 건립했으나 지반침하와 산지의 경사면 활동으로 비석이 기울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영단을 개축하게 되었다.

영단 규모는 가로 16m, 세로 4.5m로 비석단(碑石壇)과 제석단(祭石壇)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판교-일산고속화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고 영단의 분위기를 아늑하게 하기 위해 병풍석(屏風石)을 설치했다.



▲(사진2) 京畿道 義王市 浦一洞 先塋 全景



▲(사진3) 掌令公-書雲觀正公 靈壇 改築 全景



▲(사진4) 掌令公 金莢 靈壇碑 全景



▲(사진5) 書雲觀正公 金綏 靈壇碑 全景



▲(사진6) 銘文石-忠烈公 世系圖



▲(사진7) 銘文石-詩-先祖崇慕歌



▲(사진8) 靈壇 側面圖

기존 영단비는 ‘갓머리 비석’이었으나 이를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를 갖는 비(碑)로 교체하고 병풍석 23개 중 5개는 판오석(板烏石 100x100-10T)과 화강석 판을 합성하여 ①충렬공 계파도, ②서운관정

공이 야은(治隱) 길재(吉再)와 석별의 정을 나누며 헤어질 때 읊은 시와 선조숭모가(先祖崇慕歌, 松, 菊, 鶴, 虎), ③장령공-서운관정공 영단을 건립하며(초대 이사장 金定浩 撰), ④장령공-서운관정공 영단을 개축하며(현 이사장 金德永 撰), ⑤송조상문 국난극복 고유제문(빛으로 살리라, 金詳浩 撰)을 설치하여 후손과 방문자가 우리 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단비의 설치는 간좌곤향(長坐坤向)으로 비석단 중앙에서 폭 3m 간격으로 각각 설치하고 제석단에는 혼유석(魂遊石)과 석학(石鶴), 석호(石虎)도 설치했다.

석학과 석호는 선조숭모가(先祖崇慕歌)에 칭송된 송(松), 국(菊), 학(鶴), 호(虎)에 조응(照應)되는 종중의 상징물로 석학은 선조의 성품과 인격의 표상으로 비석단 양 코너에 설치하고, 석호는 선조의 용맹성을 기리는 것으로 제석단 상석 양옆에 각각 설치하여 고혼(孤魂)을 달래고 손(孫)의 묘역을 지키기 위함이다.

설단 개조공사는 약 1억5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21.4월 착공하고 2021년 11월 5일 준공 고유제를 봉행했다.

### [2]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90호 정비사업

경기도 지방문화재(記念物) 제90호는 허 난설헌 묘(許 蘭雪軒 墓)로 1986년 9월 7일 지정되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29-5번지>이다. 당초 묘지는 현 문화재 묘역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이었으나(土亭 李之菡이 선정한 곳) 1981년 중부고속도로 건설부지로 묘역이 편입되면서 부득이 천묘(遷墓) 하게 되었고 천묘 직후 문화재(기념물) 제90호로 지정받았다.

문화재 묘역의 정비사업은 광주시청이 5억여 원의 시(市) 재정을 투입하여 문화재 관광 올레길 정비공사를 하고 있어 종종도 이 사업에 발맞추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진한 정비사업은 ① 문화재 묘역 (S2) 계단 교체공사, ②하당공계파 시조비(始祖碑), ③난설헌 헌시비(獻詩碑), ④문화재 묘역 안내비(案内碑), ⑤남애공 사적비(域) 주차장과 정자를 신축하는 공사이다.

■ **하당공계파 시조비:** 하당공계파 시조는 서운관정공의 일부 방계손(傍系孫)이 성립(誠立)과 정립(正立) 후손이 종중회에 출연한 종중의 기본재산(不動産)에 탐(貪)을 내어 정관무효소송(2009~2012년 대법원 승소까지)을 냄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친족속(近親族屬)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2013년도 총회에서 하당공을 계파 시조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조비를 세우지 않아 방문객이나 참배객에게 현양(顯揚)할 수 없어 이번에 시조비를 세우게 되었다.

계파 시조비는 일반 비석과 달리 제각제형비(除角梯形碑)로 특수제작하고 전면에는 『안동김씨 서운관정공과 하당계파 시조비문(始祖碑文)』을, 배면에는 『하당공 행장(行狀)』과 『서운관정공 계파도(系派圖)』를 새겼다. 시조비는 하당공 묘소 우현에 기존 비석의 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했다. <사진-11 참조>

■ **난설헌 헌시비:** 난설헌 헌시비는 하당공 시조비와 같은 제각제형비(除角梯形碑)로 전면에는 『난초(蘭草)』를, 배면에는 『강릉초당(江陵草堂)에서』 두 편의 시를 새겼다. 이 시는 난설헌 14대손 김상호(靑庵 金詳浩)가 찬(撰)한 것으로 『난초(蘭草)』는 2014년 9월 30일 난설헌 생가를 방문했을 때 난설헌 영정각에 헌정(獻呈)한 시이고, 『강릉초당(江陵草堂)에서』는 당시 비가 많이 내려 고택의 쓸쓸한 감상에서 조선조



당시를 생각하건대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한 외가를 생각하고 지은 시(詩)이다. 현시비는 난설헌 묘 좌현에 기존 비석 면(面)보다 1m 후위에 설치하여 후손의 겸손함을 나타냈으며 비석공사는 시조비와 같다. <사진-12 참조>

■ **문화재묘역 안내비:** 문화재 묘역 안내비는 2004년 광주재실 건립 당시 작은 오석으로 제작하여 설치했으나 규모가 적어 이번에 새로 제작하여 설치했다. 비석은 오석기단에 화강석으로 규격은 (상단 110cm, 하단 150cm, 높이 200cm)로 제작했다. 비석 전면에는 『安東金氏 書雲觀正公派 荷塘公系 墓域』을 기재하고, 중앙에는 종중 로고와 『荷塘公 諱 瞻+蘭雪軒 許楚姬之 墓』, 좌측에는 『京畿道地方文化財 第 90號』를 기재했다.

[3] 남애정(南厓亭) 정자 신축공사

증영의정공 김홍도 사적비는 2011년 건립했다. 당시 묘역의 정지(整地)를 여유 있게 계획했으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사적비 역(域)이 협소하게 조성되어 비문을 읽기도 판독하기도 어렵고 방문객 차량을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불편을 주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적비 역(域) 일부를 개조하여 주차장과 정자를 건립, 방문객과 참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 **묘역주차장과 정자:** 묘역주차장은 기존의 묘역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로면과 같은 높이로 잔디식재의 성토를 제거하고 깬 잡석을 부설하여 승용차 4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정자공사는 초익공(初翼工)의 4각 정자(가로·세로 기둥 간격 3m)로 한식 기와를 얹은 목재로 축조하였다. 정자의 설치 좌향은 사적비와 같은 '해좌사향(亥坐巳向)'으로 설치했다.

■ **현판·편액 및 비석 설치:** 정자명(亭子名)은 증영의정공(金弘度)의 호를 따 남애정(南厓亭)으로 결정했다. 증영의정공의 자와 호는 중원(重遠)과 남애(南厓)로 그중에서 정(亭)의 합성어로 부르기 쉬운 남애정(南厓亭)으로 결정했다. 현판 규격은 (100x50-50T)로 현판(懸板) 글씨는 청암(靑庵) 김상호(金詳浩)가 썼고, 정자 내부에는 김홍도의 만사(輓詞)와 하당공 김첨의 시문 2편, 난설헌의 시 1편을 편액(扁額)으로 제작하여 설치했다. 정자 외부에는 증영의정공 김홍도 사적비 건립 헌시(獻詩)와 남애공 정자 건립 축시(祝詩)를 화강석과 오석판을 합성 제작하여 설치했다.

정자 상량 고유제는 2021년 7월 7일 지냈다. 상량문은 『비지상지오복(備地上之五福) 이부국강병수호국(以富國強兵守護國)』, 『응천지상오광(應天上之五光) 이자유득국태민안(以自由得國泰民安)』이라 썼다. 즉 '땅을 빛어 오복을 이루니 부국강병으로 나라를 지키고, 하늘이 오색광을 비추니 자유로 국태민안을 이루소서'하는 의미이다. 2021년 4월 8일 문화재묘역 정비공사와 5월 3일 정자건립공사 착공고유제를 봉행하고, 지난 11월 7일 준공고유제를 봉행했다. 문화재 비석과 정자공사의 소요 공사비는 2억 정도 들었다.

[4]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 소개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 종중회」는 1970년 1월 1일 설립했고,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 하당공종중회(荷塘公宗中會)」는 2013년에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당공종중회」는 종중의 기본재산(不動產) 유지보존과 직계존속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운관정공의 8세손 하당공 김첨(荷塘公 金瞻 1542~1584)을 시조로 모시고 계파종중회를 운영하고 있다.

가문은 혈통(血統)이고 정체성(正體性)이다. 우리 가문의 정체성은 승조상문(崇祖尙門)이요, 충효지예(忠孝之禮)요, 의용지인(義勇之仁)이

요, 겸양지덕(謙讓之德)이요, 자연지도(自然之道)이다. 이러한 가통과 문화는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이 되고 나아가 민족의 혼(魂)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가문의 정체성과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 2009년 종원헌장(宗員憲章)과 종훈(宗訓; 崇祖報恩, 敦親繁榮, 門位宣揚)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종중의 상징으로 宗樹(松), 宗花(菊), 宗鳥(鶴), 宗獸(虎)를 징표로 선조숭모가(先祖崇慕歌)로 지어 부르며 가통(家統)을 이어가고 있다.

선조숭모가(先祖崇慕歌)

선조의 늘 푸른 氣概는 우리의 忠節과 氣魄이 되고  
선조의 淸純함과 香氣는 우리의 사랑과 忍耐이여라  
선조의 高貴한 姿態는 우리의 性品과 人格이 되고  
선조의 勇敢한 鬪志는 우리의 삶에 未來가 되리라

乙酉 晚秋 靑庵

금년도에 시행한 영단 개축공사, 문화재묘역 정비공사, 남애정 정자 건립공사는 문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승조상문(崇祖尙門)과 문위선양(門位宣揚)을 위해 후손의 효(孝)로 시행한 것으로 시간에 적층(積層)된 역사의 향기를 다음의 시문(詩文)에 담는다.



역사의 향기(香氣)

靑庵 김상호



靑庵 金詳浩

푸른 생명은 흐르는 물에 고이고  
역사의 향기는 흐르는 시간에 자란다  
파도는 푸른 생명을 잉태하고  
시간의 흔적은 역사의 향기를 낳는다

그 많은 흔적이 풍기는 내음은  
절망의 시간에도 싹을 틔우고  
미풍에도 자라고, 더러는  
세풍에도 흔들리며 꽃피워 씨를 뿌렸으니

육백 년의 향기는, 여기,  
새로운 시간을 잉태하고  
푸른 새 생명과도 같이  
시간의 향기를 뿜어내리다

머문 곳도 잠든 곳도 모르는 시조(始祖)의 향기는  
어느 산야의 야생화로 자라  
아직도 맑고 고운 초향(草香)을 품어내리니  
나는 그 향기 여기, 새 영단(靈壇)에 그득히 담고

광주 초월에 남애정(南厓亭)을 지어 당신의 고혼을 달래고  
문화재 묘역에 하당의 시조비를 세워 당신의 영명(英名)을 잇고  
난설헌 현시비를 세워 난(蘭)을 노래하면  
만발한 진한 향기, 만세를 이어가리다



기사제공 靑庵 金詳浩 이사(書), 대중회 고문

2021.11.29. 작성, 제출





▲(사진10) 京畿道 地方文化財 第90號 全景



▲(사진11) 京畿道 地方文化財 第90號 全景



▲(사진12) 荷塘公系派 始祖碑(全面)



▲(사진13) 許 蘭雪軒 獻詩碑(全面)



▲(사진14) 南厓亭 亭子 正面圖



▲(사진15) 南厓亭 事蹟碑 側面 全景



▲(사진16) 京畿道 義王市 浦一洞 先塋 全景



▲(사진17) 京畿道 地方文化財 第90號 全景

## 증평 “김득신 다리” 개통



2021년 11월 29일 충북 증평군이 증평읍 보강천에 조선 중기 시인 백곡(柏谷) 김득신(金得臣, 1604~1684)선생의 이름을 딴 인도교를 조성하여 홍성열 증평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갖었다. ‘김득신 다리’는 길이 174.6m, 폭 3.5m로 형석중·고등학교와 대성베르힐아파트를 잇는다.

그동안 학생들이나 주민들은 인근 돌다리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비가 오면 침수가 잦아 안전사고 우려도 높았다. 이에 증평군은 28억 원을 들여 인도교 건설을 포함한 교육이음길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김득신 다리 개통으로 주민의 보행 안전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보강천 주변 5km의 순환형 산책로를 완성했다”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김득신(金得臣, 1604~1684)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공(子公), 호는 백곡(柏谷). 아버지는 경상도관찰사를 지낸 김치(金緻)이며, 어머니는 사천 목씨(泗川睦氏)로 목침(睦詹)의 딸이고, 부인은 경주 김씨이다. 어릴 때 천연두를 앓아 노둔한 편이었으나,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도를 받아 서서히 문명을 떨친 인물이다. 문집인 『백곡집』이 전하고 있다.

시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행(李荇)·정사룡(鄭士龍)·정철(鄭澈)·권필(權鞞) 같은 앞 세대 유명시인 등과 남용익(南龍翼)·김석주(金錫周)·홍만중(洪萬宗) 같은 당대 문사들의 시를 뽑아, 거기에 나름대로의 비평을 덧붙인 『종남총지(終南叢志)』 같은 시화도 남겼다. 그리고 그는 술과 부채를 의인화한 가전소설 「환백장군전(歡伯將軍傳)」과 「청풍선생전(淸風先生傳)」을 남기기도 했다.



## 장인정신으로 3대를 이어온 당진 『신평양조장』 탐방기

안동김씨역사연구회(안사연)는 2001년 포천 금수정에서 발족한 이래 금년이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21.12.11.(토) 송년회 겸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충남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350-1의 신평양조장 및 백련양조문화원(회장 김용세(金容世), 대표 김동교(金炯敎))와 서산 운산면 갈산리 산17-7 백곡(栢谷) 김득신(金得臣)의 효손 김가근(金可近, 제) 정려 및 묘소를 탐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국보 제84호 서산 마애불입상과 보원사지(보물 제102호 석조, 보물 제103호 당간지주, 보물 제104호 오층석탑, 보물 제105호 법인국사 보승탑, 보물 제106호 법인국사 보승탑비)를 답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지기간 중 안타깝게도 오미크론이라는 C-19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워드 코로나가 취소되면서 부득이 위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쁜 일정을 비워가며 시간과 장소를 할애해 주신 신평양조장 김용세회장의 성의를 저버릴 수 없어 소수의 인원만으로 탐방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서울에서 태신(익)씨 차량으로 영환(문), 태영(군), 수원에서 태용(익)씨 차량으로 재영(익), 형식(익), 윤만(문)이 분승하여 이른 아침부터 탐방길에 올라 10시경 신평양조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김용세 회장(안동김씨대중회 고문), 김선희 의원공과 동추공중회 회장께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여 접견실로 안내해 주셨다.

신평양조장 김용세(78세) 회장과 김동교(47세) 대표는 안동 충렬공 [김방경(金方慶)] 할아버님과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할머니 세일사 등 문중 대소사에 늘 '백련 맑은 술'을 제주(祭酒)로 보내주시는 고마운 종친이다.



신평양조장 '백련 맑은 술'은 2009년 청와대 만찬주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삼성그룹 사장단 만찬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차 대통령의 방일 시 아베 신조 총리 부인 선물주로도 활용되었을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전통주를 대표하는 명주(名酒)인 것이다.

장인정신으로 3대째 가업을 이어온 신평양조장은 제1대 김순식(金順植, 1910~1988) 대표가 거의 90년 전인 1933년에 '화신양조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이 어른이 김용세 회장의 선친이다. 김순식 대표는 1939년에 신평면의원에도 피선되었고, 그해 개최된 제1회 예산 조선주 주조조합 이주회(唼酒會)의 탁주부분에서 2등상을 수상하면서 근대적 양조장의 기틀을 다졌다. 해방 후에는 신평우체국 건립, 시내 전화 개통, 특히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1950년대 말 신평면에 흥국사라는 절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사찰 건립뿐 아니라 스님들이 시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농사지를 넓은 토지까지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다.

1970년부터는 아드님 김용세(金容世,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79호)가 양조사업을 이어받았다. 김용세 대표는 곧바로 주류 품평회 우수상, 제조장 환경 우수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1986년에 신평양조장

제2대 대표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회사를 경영하여 1990년도에는 백련(白蓮)을 막걸리에 접목한 '백련 막걸리'를 개발하게 되었다. 오늘날 신평양조장의 랜드마크인 '연잎으로 만드는 술'은 바로 김순식 대표가 기부한 흥국사 앞 땅, 그 연못에서 자란 연잎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지역공동체를 위해 기부한 그 마음이 오늘날 신평양조장 술의 향기로 되살아나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백련 막걸리는 '2008년 청와대 대통령 건배주'로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연속 수상하고, 살균 막걸리 부문 대상, 약주 부문 장려상, 생막걸리 부문 대상 등 수없이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2010년부터는 창업자 김순식 대표의 손자로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부에서 경력을 쌓고 있던 김동교(金炯敎, 1974生) 대표가 양조사업을 이어받아 신평양조장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환하며 3대째 가업을 계승하고 있다. 김동교 대표는 신세대다운 발상의 전환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재 서울의 강남 변화가에 신평양조장 직영 주점 '세막(CHEZ MAAK)'을 2곳에 오픈하면서 전통주 사업을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세막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CHEZ'는 ~집에서, '막'은 막걸리, 즉 '막걸리 집'이란 의미라고 한다.

이러한 발전 속에 2013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소비자들이 전통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백련양조문화원'을 개원하였다.



김동교 대표는 특히 2018년 한·중·일 정상회담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인의 대통령 선물주로 선정된 일화를 소개하였다. 2018. 5. 9.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차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외교부에서 뒤늦게 아베 일본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김치와 막걸리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외교부에서 일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김동교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급하게 막걸리를 보내 달라는 전화였다. 그래서 전 직원이 총동원되어 선물을 포장하는 업체에 도자기 술병을 구하여 대통령 로고가 들어간 백련 막걸리 선물 세트를 만들어 청와대를 통해 항공편으로 급히 일본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다.

현재 신평양조장은 4가지 종류의 술을 제조하고 있다. 플라스틱병에 담은 '백련 막걸리 스노우(Snow)'는 당진 쌀을 주원료로 백련잎을 첨가하여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특징으로 하고, 유리병에 담긴 고급 제품인 '백련 생막걸리 미스티(Misty)'는 스노우에 비해 보다 깊은 맛과 탄산이 조화를 이루는 점이 특징이다. '백련 살균 막걸리 미스티'는 저온살균 처리하여 보존기간이 길며, 생막걸리 미스티에 비해 탄산이 없고 부드러우며 깊은 맛을 내는 점이 특징이다. 청주인 '백련 맑은 술'은 발효된 백련 막걸리의 원주(原酒)를 장기간 숙성시켜 맑은 부분만 여과한 맑은 술로 막걸리에 비해 더욱 깊고 백련 잎의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신평양조장은 대한민국 근현대 양조산업의 시작과 그 역사를 같이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3대를 이어온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전통주 제조 및 체험 관광 사업을 전개하며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김용세 회장은 단호하게 말한다. 막걸리란?



“막걸리는 ‘문화’요, ‘철학’이며, ‘과학’이고, ‘예술’이다.” 즉, 막걸리가 ‘문화’인 것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전통이 막걸리에 녹아 있기 때문이고, 막걸리가 ‘철학’인 것은 막걸리에는 철학처럼 숨어 있는 것이 많아서이며, 막걸리가 ‘과학’인 것은 종균이 쌀을 먹고 자라면서 알코올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고, 막걸리가 ‘예술’인 것은 술 담그는 장인의 손길에 따라 맛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잘 생긴 종균으로 술을 빚으면 맛있는 술이 나오고, 못생긴 종균으로 술을 빚으면 술맛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막걸리가 ‘예술’이라는 것이다.

김동교 대표는 확신에 차서 또 말한다. 술은 당(糖)으로 만든다. 당이 좋아야 좋은 술이 빚어진다. 당으로 만든 술의 종류는 다양하다. 쌀, 보리, 밀로는 발효주인 막걸리, 약주, 사케를 만들고, 이것을 증류하면 증류식 소주가 된다. 보리, 밀, 호밀로는 발효주인 맥주를 만들고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영국)가 되고, 포도로는 발효주인 와인을 만드는데 이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프랑스 꼬냑)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증류주가 있는데 사탕수수로 럼주(쿠바)를, 아가베(용설란)로 데킬라(멕시코)를, 감자로 보

드카(러시아), 옥수수로 버번(미국), 수수로 빠이주(중국), 노간주 열매로 진(네덜란드)을 만든다는 것이다.

신평양조장에서 문중사와 관련 한가지 알게 된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 증류식 소주 제조법이 전래된 것은 13세기경이라고 한다. 고려 충렬왕 때 제2차 일본정벌 고려군 도원수인 충렬공 김방경(金方慶) 할아버님을 매개로 하여 몽골의 병참기지가 있던 안동지역에 소주 양조법이 전래되어 오늘날 안동소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이 증류식 소주 제조법은 충렬공 할아버님의 일본정벌 루트를 타고 일본에도 전래되어 쓰시마[對馬島], 이키시마[壹岐島]에 까지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쓰시마 소주. 이키시마 소주를 마셔보면 그 맛이 안동소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스노우’ ‘미스티’ ‘백련 맑은 술’ 등을 시음하면서 2시간 30분에 걸쳐 신평양조장 안밖의 탐방을 마쳤다. 오늘 탐방에서 우리나라 전통주에 대한 많은 이해와 상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아마도 신평양조장은 김용세 회장의 전통주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조상님에 대한 정성과 향념이 충렬공 할아버님의 가호 아래 4대, 5대를 거쳐 영구히 우리나라 전통주의 명가로 이어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삼교호관광단지로 이동하여 ‘사랑회 you(충청도 말로 사랑해유)’로 자리를 옮겨 요즘이 제철인 방어회와 소주를 곁들여 종친 간 따뜻한 우의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고맙게도 오늘 식사는 함께하신 김선회 동추공중회장께서 지불해 주셨다. 다시한번 이 지면을 통해 그날의 호의에 감사드린다.

- 문온공 파종회 회장 · 안사연 총무 김윤만 -

## 『오은김사렴600년사(梧隱金士廉六百年史)』발간



안렴사공파종회에서 회장 형남(亨南), 사무국장 현수(炫秀) 등 일부 후손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해 수 년간의 자료조사와 집필, 번역, 교정, 감수 등 각고의 노력 끝에 2021년 11월 09일 안렴사공파 역사를 집대성한 『오은김사렴600년사(梧隱金士廉六百年史)』를 발간했다.

안렴사공파는 안동김씨 중시조(中始祖) 충렬공(휘 방경)의 현손(玄孫)이신 오은(梧隱) 김사렴(金士廉, 1335~1405)을 파조(派祖)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으며 대대로 충신(忠臣), 효열(孝烈), 학문(學文) 등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이번에 발간한 『오은김사렴600년사』로 인해 미처 알지 못했던 안렴사공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선조들이 지켜왔던 훌륭한 터전과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데도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도 잘 활용되길 바라면서 전국의 안렴사공파 종친 및 국공립도서관 등 유관기관에도 배포를 끝냈다.

『오은김사렴600년사』의 편집은 제학공파 용항(容恒)씨가 담당했으며 총 3권으로 제1권은 비문. 각종 현판 등 423쪽에 걸쳐 서술된 금석문집(金石文集)이고, 제2권은 사진집(寫眞集)으로 287쪽에 달하는 묘소.정자.재사 등의 사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제3권은 567쪽에 이르는 자손록(子孫錄)으로 후손들의 기록을 약술하였다.



오은공(梧隱公)께서는 고려 말에 안렴사(按廉使)로 나아가셨으나 고려사직이 다하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자 청주 도산(陶山)의 오근촌(梧根村)으로 은거하시며 당호(堂號)를 오은(梧隱)이라 하시고 두문신(杜門臣)으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키셨다.

일찍이 우암 송시열은 탄시하며 이르기를 “충병일월 절고산악 일편도산 만고수양(忠炳日月 節高山岳 一片陶山 萬古首陽) 이라고 하며 오은공의 절의(節義)를 기렸다. 두문동 72현의 한 분으로 송천서원(宋泉書院), 경현사(景賢祠), 두문동서원(杜門洞書院)에 배향 되셨다.

- 안렴사공파종회 사무국장 김현수 -



# 경안천의 무지개 다리 '경안교' - 총렬공 김방경



▲2001년 8월 5일 경안천 하류에서 손낙기 씨가 만든 배 위에서 재현한 뱃놀이. (사진=성남학연구소 제공)

광주시 중심부를 지나 한강에 합류하는 경안천은 용인시 처인구 호동 용해곡 부근 계곡에서 발원하여 모현읍을 지나 광주 오폭읍과 경안동 일대를 지나면서 몇 개의 지류를 모아 북쪽으로 흘러 분원리에서 한강을 만난다. 기록마다 京安, 慶安 등 한자 표기가 다른데 옛날 기록은 대부분 慶安으로 전해온다.



▲김방경 장군 영정. (사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경안천에는 '경안교'가 있었다. 1847년 홍경모가 편찬한 '중정 남한지'를 보면, 고려의 김방경(金方慶, 1212~1300) 장군이 경안교를 축조하고 돌로 무지개처럼 둥근 홍예(虹蜺)를 만들어 제법 웅장한 모습을 갖추었다. 다리를 놓을 때 연못에 사는 용 가운데서 성격이 사악하고 거친 독룡(毒龍)이 거친 비바람을 일으켜 공사를 방해하여 준공할 수 없었는데, 묘회암(妙會庵)에서 온 신승(神僧)이 물속으로 들어가 용과 한참 동안을 싸웠다. 마침내 피가 물위로 떠오르더니 중은 돌아가고 마침내 다리가 완공되어 이 공적을 비석에 새겨 다리 옆에 세웠는데, 지금은 사라져버렸다.

김방경은 토목공사에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평안도 앞 바다에 위도(葦島)가 있는데, 10여 리나 편편하여 농사를 지을 만하나 조수(潮水) 때문에 개간하지 못하더니, 김방경이 명령하여 수레 두 대가 나란히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독을 쌓게 하여 곡식을 심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무척 원망했지만, 가을이 되어도 육지의 몽골군은 물러가지 아니하고, 섬에는 풍년이 들어 그 덕으로 살아났다. 섬에 우물이 없어서 육지로 물길러 갔다가 때때로 사로잡혀 가므로 방경이 연못을 만들어 빗물을 모아 여

름에는 물을 길어 쓰고, 겨울에는 얼음을 뚫어서 사용하니, 비로소 그의 지혜에 승복하였다. 경남 밀양의 '수산제(守山堤)'는 둘레가 20리인데, 김방경이 이 뚝을 쌓아 밤에 물을 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군량미를 생산하였다.

조선 인조 2년(1624)에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크게 패하여 남은 50~60기(騎) 정도를 이끌고 경안교로 도망가 쉬고 있을 때, 정충신이 27기를 인솔하고 추격하자 적들이 바라보고는 후속 부대가 또 있는가 싶어 일시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괄·한명련은 밤을 이용하여 이천으로 도망쳤는데, 그들의 부하였던 이수백·기익현이 두 역적의 목을 베어 행재소에 바쳤다.

정조 임금이 1779년에 여주의 효종 영릉(寧陵)에 참배하러 오갈 때 경안천에 이르러, "냇물이 넓고 다리가 길어 수리하는 일이 반드시 적지 않았을 텐데, 민간에 폐해를 끼침이 없을 수 있었겠는가?" 하니, 승지 이의익이 아뢰기를 "여러 읍(邑)이 힘을 합쳐 수리했기 때문에 별달리 민간에 폐해를 끼침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정조 임금 때 안양 석수동 삼막천에 만든 홍예교 양식의 만안교 (사진=성남학연구소 제공)

경안교는 김방경이 축조한 옛 모습은 없어졌어도 계속 정기적인 보수를 해 왔다. 분원에서 도자기를 공급하던 공인(貢人) 지규식(池圭植)이 고종 28년(1891)부터 1911년까지 20년간 남긴 '하재(荷齋)일기'에 보면 1896년 9월 6일, 1901년 9월 7일, 1904년 9월 2일, 1905년 9월 20일, 1908년 9월 20일, 1909년 8월 28일 등 주로 9월에 마을 사람들이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해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경안교는 서울과 강릉을 잇는 2등 도로였고, 1936년에 대대적으로 교량을 건축한 공사 관련 서류와 도면이 남아 있다.

김방경이 쌓은 옛 경안교 석재와 고려 말에 세운 비석이 지금도 경안천 자갈 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경안교 무지개 다리는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김대성 기자

## 대중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중회에서는 대중회보(중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싣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 제출처 : 대중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 연락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격변기 대한민국을 움직인 안동김씨(安東金氏) 인물사(3)

# 대한민국 산업을 계획 · 설계한 우정 김재관 박사

## 1. 철강산업 · 자동차산업 육성의 효시(嚆矢)



세계인들은 우리나라를 ‘기적의 나라’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불과 20~30년 만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까지 훌륭하게 치러 냈기 때문이다. 세계가 놀란 전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1·2차 산업 이후의 한국경제를 이루는 원동력은 단연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중 포스코는 세계 1위의 철강 회사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큰 발판이 된 회사다. 미국 조사단이 포항제철소 건립 계획을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김재관 박사는 끝내 성사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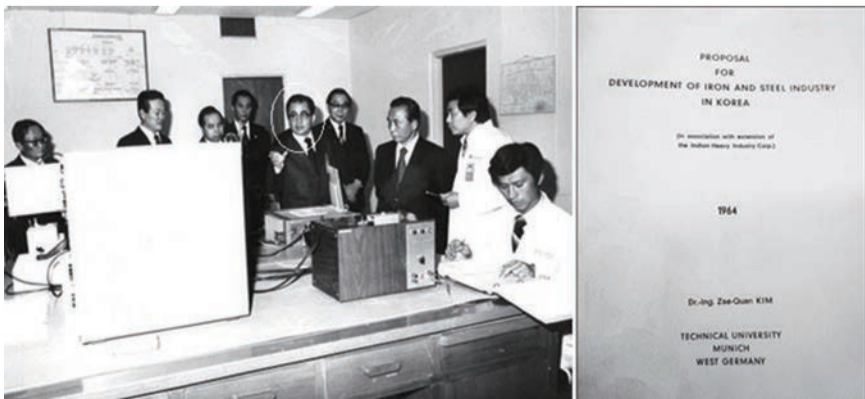
흔히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당시 박태준 대한중석사장이 진두지휘하여 1970년 포항제철(현 포스코)이 가동함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포항제철 가동 수년 전 종합제철에 대한 계획서를 입안하여 이를 박 대통령에 제안해 제철입국의 비전을 다지게 한 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 주인공이 우정(宇靜) 김재관(金在官, 1928~2017) 박사다. 1956년 독일정부에서 선발하는 장학생 4명중 교수 3명과 재학생으로는 유일하게 김 박사가 서울공대 재학 중에 합격하여 독일 뮌헨공대에 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후, 당시 서독 최고의 철강 및 중공업체인 데마그(DEMAG 社)에 입사해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선진국 산업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서독을 방문했을 때에 뮌헨의 조찬모임에 초청을 받은 김 박사는 박 대통령에게 책자 3권을 건넸다. 표지는 『한국 제철공업 발전 제안서』라고 쓰여 있었다.

“각하, 철강재는 공업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자금(資金)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제 논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귀국 후 이 제안서를 검토시킨 후 이를 토대로 포항제철을 지으라고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에게 지시한다. 그리고 1967년 김 박사를 국내 유치과학자 제1호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합류시켜, 김학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단장으로 한 ‘종합제철 건설계획 전담반 (일명 15인회)’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1974년경 KIST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철강산업계획안’을 설명하는 김재관 박사

## 2. 과학 기술 발전에 한평생, 연구자의 길

키스트(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밤잠을 설치며 연구한 김 박사의 보고서는 과학기술 기반 중화학공업 육성과 ‘4대핵심 공장건설계획’ 등 포항제철을 비롯해 현대조선(현 현대중공업) · 삼미특수강(현 현대비앤지스틸) ·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등 한국을 먹여 살리는 수많은 제조 기업이 탄생한 ‘설계도’였다.



▲1969년 6월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 위촉 좌측 첫 번째가 김재관박사 가운데가 김학렬부총리

이후 김 박사는 미국 바텔기념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73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초대 차관보로 자리를 옮겨 중공업 정책 책임자로서 다시 ‘자동차 산업 육성방안’을 꺼냈다. 한국 고유의 자동차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당시 한국 연구개발 수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박사는 박 대통령과 독대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하여 현대자동차가 포니(pony)를 생산하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하게 하였던 것이다.



◀1976년 생산 국산 승용차 고유모델 1호 ‘포니1’

## 3. 우리나라 국가 표준제도의 시조(始祖) 김재관 박사

한편 김재관 박사는 한국표준연구소를 설립하는 일을 맡아 초대 소장을 역임하면서 국가 측정표준이 앞으로의 과학기술발전의 바탕이 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초가 될 것이라는 당위성을 1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주창했고 이 필요성을 확인해 준 것은 1995년 WTO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효율적인 운영의 시급성이 인식되면서 김 박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1999년 2월에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처럼 김재관 박사는 당시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 · 종합제철 · 자동차산업 · 국가표준제도 등의 최초 육성방안을 기획 · 설계하고 이들 산업 탄생의 밑그림을 제시하여 20세기 후진 농업국에서 선진공업국 대열로 진입하는 산업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975년 '한국표준연구소'로 설립 하여 김재관 박사를 초대 소장에 임명했다. 현재는 기관명칭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변경되었다. [위치 대전 유성]

#### 4. 김재관 박사는 누구인가?

김재관(金在官, 1933~2017) 박사는 건축업을 하는 아버지 도묵(度默)의 3남 2녀 중, 맏이로 화성의 남양에서 태어나 90세의 수를 누리 고 그곳에 묻혔다.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익원공(휘 사형)의 후예이며 직계의 역사인물로는 형조판서를 지낸 효소공(휘 작), 신창현감(휘 계함), 연안부사(휘 인) 등으로 이어져 왔다. 부인 양혜숙 한국공연예술원 이사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튀빙겐 대학에서 독일 문학을 전공했는데 유학시절 뮌헨의 독일문화원에서 처음 만나 1965년에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다.



▲아들 김원준 교수

외아들 원준(玩俊, 보명 元會)은 연세대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카이스트(KAIST)대학 교수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으로 2019년 1월 제철산업과 중화학공업, 자동차 공업 등과 관련해 부친 김재관 박사 등 당시 주역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KIST,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초석'이란 책자를 펴냈다. 연구소는 정부의 미래 산업전략과 계획 작성에도 참여했다. 과학기술진흥 장기 전망을 비롯해 장기에너지 수급계획, 중공업 육성방안, 기계공업 근대화 방안 등 정부의 장·단기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계획 작성에 두뇌 역할을 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연구소에서 열정을 다해 과학기술 강국과 산업발전의 초석을 놓은 주역이었다고 소개 했다.



▲2009년 11월 25일 안동시제, 김재관박사 내외분과 재남 익원공파총회장

#### 《김재관 박사 이력사항》

##### 【학력】

- 1944~1950 중앙중학교 졸업
- 1950~195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학사
- 1956~1958 서독 뮌헨공과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 1958~1961 서독 뮌헨공과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 【경력】

- 1958~1962 서독 뮌헨공대 기계공학과 근무
- 1962~1964 서독 DEMAG社 기획부 근무
- 1964~1964 서독 뮌헨공대 금속(기계재료)연구소 연구원 근무  
대한민국 종합제철산업 육성 건의(원헌, 박정희 대통령)
- 1967~1972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포항종합제철소 최초설립 프로젝트 추진 최초 103만톤 설계, 대한민국 최초 고유모델 자동차산업 건의 기획 대한민국 산업화 최초 "중공업 발전의 기반" 정책 설계
- 1968~1968 미국 Battelle 기념연구소 연구원
- 1972~1973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소장
- 1973~1974 상공부 초대 중공업차관보-대덕과학연구단지 건립위원장
- 1974~1975 국립공업표준시험소 소장
- 1975~1980 한국표준연구소 초대 소장
- 1980 국가표준제도의 헌법명문화 국회 건의, 명문화
- 1981 인천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1985 한독협회 부회장 (회장 김우중)
- 1985~1991 한국정밀공학회 회장
- 1987 국가표준제도 (헌법 제127조 2항) 국민투표 확정
- 1988~1991 인천대학교 대학원장
- 1997 국가표준기본법제정 국회 건의, 발효
- 1999 국가표준 대표기관인 국가표준원 창설

##### 【수상】

- 1971 • 국민훈장 독백장
- 1988 • 5.16 민족상
- 2001 •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 【저서】

- [저서 기술 분야 23권]
- 철강 및 중공업 분야 - 7권
- 자동차공업 분야 - 2권
- 국가표준제도 분야 - 8권
- 국제협력 분야 - 6권

- 1964 한국의 철강공업육성(영문)
- 1970 중공업발전의 기반 (상, 하)
- 1986 국가표준제도의 국제비교연구
- 1988 2000년대의 국가표준제도
- 1998 선진국가 표준제도의 확립 연구  
뮐렌도르프의 일생

##### 【논문】

- 1976 국가표준제도의 확립방안 연구
- 1976 한국과학재단
- 1985 국가표준제도의 발전유행에 관한 연구
- 1986 국가 표준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 1988 2000년대의 국가표준 제도
- 1988 학술진흥재단
- 1998 선진국가 표준제도의 확립 연구

##### 【관련자료】

- 중앙일보-[삶과추억] 박정희가 처음 불러들인 '유학파 과학자' 김재관 박사
- 조선일보-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포항제철 설립 건의 김재관 박사
- 헬로우디디-'국가표준제도확립 주역' 김재관 표준연 초대소장
- POSCO 뉴스룸-[포스코 기획] [남기고싶은이야기 42] 김재관
- POSCO 뉴스룸-[포스코 기획] [남기고싶은이야기 71] KIST 1세대 연구원
- 매일경제-[나의 유학시절] 인천대교수 김재관 1.2



## 개화내각의 총리대신 김홍집(金弘集)은 죽음 앞에 몇몇하였다.

대종회 고문 동천 김창회



한말의 친일 개화내각의 수령으로 활동한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다.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시해된 이듬해인 1896년 2월이니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는 아침이다.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친로파(親露派) 내각이 들어서자 그는 내각 총리대신에서 실각되고 역적의 괴수로서 체포령이 내려졌다.

경무청으로 끌려가던 그는 광화문거리에서 성난 군중들에게 덩미를 잡힌 채 몽둥이로 타살되고 말았다. 을미사변 직후라 흥분한 군중들은 그의 시체에 밧줄을 걸어 개 끌 듯이 끌어서 종로로 옮겨 갔다. 그리고 주먹질 밧길질 팔매질의 남발 속에 어느 군인이 칼로 그의 남근(男根)을 잘라 내면서 소리쳤다. 이런 역적은 씨를 남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광경을 심하다고 한사람은 역적으로 몰리는 판국이 되었다.

당시는 국모(國母)가 일본인들에 의해 무참하게 시해된 한을 안고 있던 민감한 시기라 군중들은 총리대신 김홍집을 이렇게 죽이고도 오히려 분이 덜풀렸는지도 모른다. 그는 나라의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지 16년이 되는 해이다.

그는 청일(淸日)전쟁의 승리로 대궐을 점령한 일본군의 후광을 업고 갑오(甲午)개혁을 수행하였으며 김홍집 내각이 이루어지고 총리대신으로 재임할 때 일본의 권고에 따라 단발령을 실행하였다. 당시 사회분위기는 영위지하무두귀(寧爲地下無頭鬼) 불작인간단발인(不作人間斷髮人)이라 “차라리 지하에서 머리 없는 귀신이 될지언정, 인간 세상에 상투 자른 사람은 되지 않겠다.”하고 상투를 생명보다 중하게 여겼다. 지금 한 세기가 흘러가고 개화된 세상에도 지리산 청학동에는 아직도 상투를 이고 다닌 사람이 있다 고하며 혹자 사람들은 그들을 고상하게 보기도 한다.

당시의 사회 통념은 단발령 시행의 한 가지 죄과만으로도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는 충분하였다. 하지만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도 대의를 버리고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 몇몇한 사람 이었다. 그가 절제절명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 일본인 군대가 달려와서 위기를 구해 내려고 했다. 김홍집은 정중하게 소리쳐 말했다. “한나라의 총리대신으로 동족의 뒤통에 죽는 것은 시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요, 남의 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구차하게 살아남고 싶지는 않소” 하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며 몽둥이가 기다리는 동족을 향해 걸어갔던 것이다.

그의 최후가 이렇게도 숙연(肅然)하였거늘 누가 그를 친일파라고 욕하겠는가 다만 나라의 오래된 구태를 벗어버리고 부강의 길로 가기 위한 개화의 선구였다. 그가 일신의 영달을 탐하는 친일파였다면 일본에 붙어서 신변의 안전을 취하였겠지만 그를 버리고 동족에게 맞아 죽는 길을 선택할 만큼 나라를 사랑했고 일본의 힘을 이용하여 개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일념 이었다. 반면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이완용(李完用)이야 말로 원래 친일파가 아니었다. 친로파 정책의 한사람으로 아관파천을 주동하였으나 일본에 붙어서 이등박문의 추천으로 총리대신이 되고 나라를 팔아먹고 백작 후작의 승급으로 천수를 누리고 종말에는 매국노라는 천추에 씻지 못할 오명

을 남겼다. 우리 사회에는 초심(初心)보다 만절(晩節)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판단의 오류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만절은 모든 착오와 과실 불미와 불신을 묻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선인들이 말씀하신 유방백세(遺芳百世)와 유취만년(遺臭萬年)의 갈림길이 곧 단절인 것이다. 절자는 마디절(節)자이다. 녹색군자절(綠竹君子節)이란 말이 있다. 다른 나무는 마디가 없다 유독 대나무는 마디가 뚜렷한 특징이 있다.

각설하고 김홍집의 일생 이력을 인명 대사전에서 발췌하여 적어 본다. 그는 조선조의 정치가로서 초명은 굉집(宏集)이며 자는 경능(敬能)이고 호는 도원(道園) 관향은 경주요 참판 영작(永爵)의 아들이다. 1868년 고종 무진에 정시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광양(光陽)현감으로 출사하고 1880년 예조참의로 재직할 당시 수신사가 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이어 중국인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을 소개하여 개화정책을 적극 추진한 공으로 예조참판에 승진하였으나 개화를 반대하는 유학자들의 척사운동(斥邪運動)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개화정책을 소개한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다.

1882년 구미열강의 통상요구와 임오군란(壬午軍亂)의 뒤처리등 복잡한 국가 문제에 부딪친 정부에 다시 기용되어 한미, 한영, 한독등 수호조약 체결의 부사(副使)로 제물포조약 체결의 부관(副官)으로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고 경기도 관찰사로 승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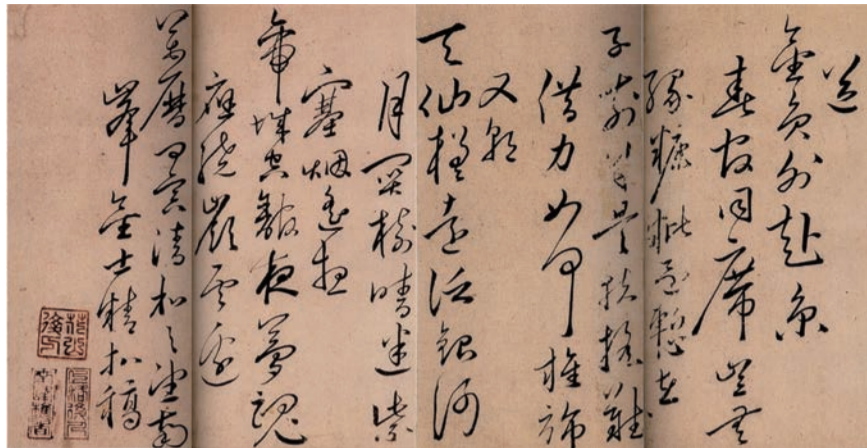
1884년 예조판서 한성부 판윤을 역임하고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우의정 좌의정의 지위에서 전권대신이 되어 한성조약을 체결한 뒤에 사임하고 판중추부사로 한직에 머물렀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 일본 세력의 침투가 표면화 하자 그 힘을 빌어 제1차 김홍집 내각이 조직되고 총리대신이 되었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의 우위가 인정되어 그들의 강요에 의하여 친일 내각이 다시 조직되었다. 이때 홍범(洪範) 14조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국가체계를 세우고 갑오경장(甲午更張)의 과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가 재정은 어렵고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등 극단적 친일파와의 대립으로 내각은 와해되고 박정양(朴定陽) 내각이 탄생하였다. 박정양 내각은 구미 열강의 친근세력으로 기울어지자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김홍집내각으로 개편하였으며 단발령의 반항으로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하고 그들의 규탄을 받았다. 이때에 아관파천으로 친로파 내각이 조직되자 김홍집 내각은 무너지고 전기한 바와 같이 광화문 거리에서 난도들에게 살해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나라를 구하려는 개화사상을 평가하여 충헌(忠獻)공의 시호를 내렸다.

전고대방(典故大方)의 상신록(相臣錄) 기록을 살펴보았다. 모두들 365명의 정승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그중에는 기국과 재능과 문장이 뛰어나 입덕(立德) 입공(立功) 입언(立言)의 업적을 남기신 분도 있으려니와 혹은 소인으로 혹은 간신으로 혹은 변절자로 역사에 먹칠한 사람도 있다. 상신록 중에 김홍집은 끝에서 여덟 번째이며 난도들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었으나 나라에서 내린 충성어린 시호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 남봉(南峯) 김치(金緻) 선조님 친필 시고



送 金員外赴京 김 원외랑(金員外郎)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떠나는데 송별하다.

春官同席豈無緣 예조에서 함께 어울렸던 자리 어찌 인연이 없었으랴  
糠粃還慙在子前 하찮은 존재 그대 곁에 있었음이 도리어 부끄럽네.  
自是扶搖難借力 이로부터 힘차게 움직였지만 힘을 빌리기 어려웠는데  
如何旌旆又朝天 어찌하여 깃발 앞세우고 명나라로 떠나시오.  
仙槎遠泛銀河月 사신이 탄 뗏목은 멀리 은하수의 달 가까이 띄우겠고  
關樹晴迷紫塞烟 관새(關塞)의 나무는 자주 빛 만리장성의 연기에 아득하다.  
遙想帝城空館夜 멀리서 황제의 도성 빈 관사에서 지내는 밤을 생각하니  
夢魂應繞嶺雲邊 꿈과 혼은 응당 잿마루 구름가의 고향 하늘에 들렸으리라

萬曆 甲寅 清和之望 南峯 金士精 拜稿  
1614년 4월 15일 남봉(南峯) 김사정(金士精)은 공손히 원고를 쓰다.

※이 시고는 구전(苟全) 김중청(金中淸)이 49세 되던 해인 1614년에 천추사 겸 사은사 허균(許筠)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의 사행을 갈 때 지어준 남봉 김치 선조님의 친필 송별시입니다. 김중청은 이 때 여러 지인들이 지어준 송별시들을 가지고 북경에 도착하여 옥하관(玉河館)에 머물하면서 발문을 쓰고 장첩하여 <부경별장첩(赴京別章帖)> 이라고 제호 한것입니다.

【출처】 국학진흥원 - 도록 《부경별장첩(赴京別章帖)》

■ 김치(金緻, 1577~1625)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정(士精), 호는 남봉(南峯)·심곡(深谷). 김석(金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충갑(金忠甲)이고, 아버지는 부사 김시회(金時晦)이며, 어머니는 양언개(楊彦溉)의 딸이다. 증 영의정 김시민(金時敏)에게 입양되었다. 아들이 시인으로 이름을 떨친 백곡(栢谷) 김득신(金得臣)이다.

1597년(선조 30) 알성 문과에 급제, 설서(說書)를 거쳐 1608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광해군 때 사복시정(司僕寺正)·이조참의·동부승지·대사간을 거쳐, 교리(校理)·부제학(副提學)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의 학정이 날로 심해짐을 깨닫고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 두문불출하였다. 대북파(大北派)로 몰려 유배당했다가 그 뒤 풀려나 동래부사를 거쳐 1625년(인조 3)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어릴 적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경서(經書)에 통달하였고, 특히 점술을 연구하여 천문(天文)에 밝았으며 저서로는 『남봉집(南峯集)』『심곡비결(深谷祕訣)』이 있다.

■ 김중청(金中淸, 1566~1629)  
본관은 신안동. 자는 이화(而和), 호는 만퇴헌(晩退軒) 또는 구전(苟全). 할아버지는 김정헌(金廷憲)이고, 아버지는 절충첨지중추부사(折衝僉知中樞府事) 김몽호(金夢虎)이며, 어머니는 박승인(朴承仁)의 딸이다. 조목(趙穆)의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났다. 1610년(광해군 2)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613년 전적·예조좌랑·정랑을 역임하고, 49세 때인 1614년 4월에 천추사 겸사은사 허균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의 사행을 출발하여 이듬해 1월 11일 복명하였다.

1615년에 문학(文學)이 되었으며, 정언(正言)으로 폐모론을 반대하는 이원익(李元翼)을 탄핵하라는 대북파(大北派) 정인홍(鄭仁弘)의 부탁을 거절하자 파면되었다.

1616년 신안현감(新安縣監)에 이어 1621년 승정원승지로서 선유사(宣諭使)가 되어 영남을 순행하였다. 이후 산직(散職: 권력이나 직무의 중요성과는 거리가 있는 관직)에 머물렀으며 인조반정 후에는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봉화의 반천서원(槃泉書院)에 제향되었다.

## 訃音

### (提)정응(貞應, 會行) 대중회 이사 별세



안동김씨대중회 정응이사께서 2021년 11월 30일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장례는 안양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으며 천안 병천면 선영에 모셔졌다.  
1935년생이신 정응이사는 제학공(휘 익달)의 후예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공직을 정년 퇴임한 후에는 천안노인회 동면분회장으로 봉사하였으며 안동김씨대중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가족은 민선식여사와 사이에 2남1여인데, 장남 태섭, 차남 태성, 딸은 경화로 치과의사이다.

### (典)용우(龍雨) 대중회 이사 별세



안동김씨대중회 용우이사께서 2022년 1월 28일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장례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으며 화성 정남면 선영에 모셔졌다.  
1945년생이신 용우이사는 전서공(휘 성목)의 후예로 안동김씨대중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가족은 1남 2녀를 두었다.